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A군은 2021년 6월 “학교에서 맞고 다니 게 너무 X팔리고 서러웠다”는 짝막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보면 몸과 영혼에 상처를 입고 홀로 신음하던 A군의 처절한 고통이 전해 온다. 폭행은 일상이고 목졸라 기절시키고 영상 촬영해 공개하기, 여학생 앞에서 옷 벗기기 등 헤아리기 어려운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같은 학교 ‘친구’ 열 명이 2년 동안 ‘친구’를 침습 처벌 물어뜯어 죽음으로 내몰았다. 법정에서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가 돼 피고들처럼 재판받았으면 좋겠다”며 절규하던 부모는 광주를 떠났다.

학교에서 지체되는 정의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도 조용하던 나라가 ‘정순신’으로 시끄럽다. 넷플릭스 드라마와 맞물려 세상 ‘학폭’(학교 폭력)에 대한 공분이 증폭되고 있으나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진부하다. 기득권과 가진 자들이 능력과 재력, 인맥을 동원해 살아가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학폭 대책 보완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책을 촘촘하게 짜고 법망을 강화해도 이들에게는 간단히 뛰어넘는 허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청문회를 100일 동안 열어도 A군은

‘학폭’ 해법은 학교에 있다

비슷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 왜 부모와 친구에게 구명을 호소하지 않았고, 학교는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을까 역시 규명할 수 없을 것이다. 청문 대상이 학폭이 아니라 정순신이기 때문이다.

정순신 사태의 본질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한 유명인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길목에서 뒤늦게 학교폭력에 발목 잡히는 이유다. 이들이 가해자로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면 피해자라도 나서 감쌌을 테지만 그런 일은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세 건 가운데 한 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전학이나 퇴학 보다는 대부분 학교에 남아 낮은 징계를 받는다.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 가해자를 졸업할 때까지 마주쳐야 한다. 가해자들은 이런 사정을 원히 꿰뚫고 있다. 정순신 아들같이 든든한 배경을 둔 학생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문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분쟁 조정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적시한 형법과 달리 처벌을 내세우지 않는 게 이 법의 특징이다. 가·피해자가 청소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교단에서는 아직도 학교 폭력을 생기부에 남기면 ‘낙인 효과’가 생긴다며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교육적 이상주의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가 책상 머리에서 학폭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만 답은 현장에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이호동 경신중 교사는 18년째 학교 안팎에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급훈은 ‘학교 폭력을 아웃’이다. 반장·부반장의 기본 자격 조건도 ‘학교 폭력을 담임에게 신고할 학생’이다. 담임이 학생들과 모든 일과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한 시스템이다. 그가 집약한 학폭 예방 문구는 정곡을 관통하고 있다.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절대 가만 있지 말고 신고할 것’ ‘학교 폭력을 당하면 누구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 ‘친구에게 하는 장난·놀림은 그 자체로 학교 폭력이다’ 이 문구를 전단지에서 학교 밖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다.

피해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그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세뇌’가 필요하다”면서 “부모들이 아이 학교갈 때 차 조심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을 당하면 반드시 엄마 아빠에게 말하고, 친구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알려도록 매일 당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이 폭력에 저항하고 퇴치를 위해 연대하도록 일깨워야 한다는 게 요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교통사고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에 만연한 폭력의 생태를 적출하고 근절책을 마련하려면 학폭 피해자와 가족, 현장 교사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이들의 피해 사례와 대처 과정에 학폭 대책의 한계와 해법이 담겨 있다. 폭력을 장난으로 여기는 가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 양식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법이 나온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삼월을 보내면서



강대석
시인

어느덧 삼월의 끝자락에 서 있다. 삼일절로 시작되는 삼월은 꽃샘 바람과 함께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선열들의 모습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삼일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여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는 기념사를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일본과의 선린 외교와 국익이 중요해도 삼일절에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어른은 좋지 않았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마저도 기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TV 방송에서 여론의 패배들도 너무 성급함을 인정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은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열린 한일정상 회담은 너무 나갔다. 한마디로 그동안 일본이 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선제 해결해 주는 선심 외교이자 굶주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과 과거사는 전혀 고려가 없어 보였다. 물결의 반은 일본이 채워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보란 듯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을 채울 기세다.

요즘 천공이란 자의 발언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카톡에 떠돈다. 그 동영상을 보면 “일본은 적이 아니다. 일본한테 당한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옛대들이지 우리 세대가 아니다. 우리 세대는 일본의 칼에 찔린 적이 없다. 어른들 말만 듣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둔한 것이다. 일본을 고깝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긴 머리를 풀어내렸다. 너무 황당하고 천박한 인식에 언급조차 부끄럽지만, 천공의 말대로 일본을 고깝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외교문제를 우리가 선제 해결해 주고 있지 않은지 곰곰히 다.

조선 말기 진령군이란 무당이 있었다. 민비가 임오군란으로 성난 군인들에게 쫓겨 충주 장호원까지 도망가 있을 때 미래가 궁금하여 여러 무속인을 만났다. 하

루는 한 여인이 찾아와 민비의 환궁을 확인하며 환궁할 날짜까지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신동하게 맞아떨어졌다. 민비는 그 무당을 궁으로 데리고 와 진짜 영험하다는 뜻으로 ‘진령군’(眞靈君)이란 작호를 내렸다. 군(君)이란 왕의 종친이나 큰 공을 세운 대신에게 내리는 벼슬이다. 이후 진령군은 민비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자신이 관우의 딸임을 자처하며 복관묘를 세우고 왕실을 위해 국, 산천기도, 제사를 지내며 고종과 민비의 국정 자문을 대신했다. 고관대적이 바친 뇌물이 복관묘에 쌓였다. 이에 매천 황현은 “화와 복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렸으니, 수령 방백들이 자주 그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매천야록’에 기록했다.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다. 위세 높던 진령군도 정일전쟁 이후 친일 내각이 들어서자 12년 만에 체포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용산 이전, 한일 정상회담 파주기 등 사실 여부를 떠나 천공의 그림자가 국정에 이른거림은 여론으로서도 큰 부담일 것이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 삼월을 보내면서 시끄러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깊이 새길 때이다.

기 고

인문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갖기



이창수
광주 남구 주민행복담당관 팀장

지난달 문을 연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는 시·음악·철학·역사 네 과목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시가 12회, 음악·철학·역사는 각각 8회, 총 36회로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2일 마감한다. 시가 다른 수업보다 횟수가 많은 이유는 주민 수요가 더 많아서다. 강의실은 수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남구 청 8층 대회의실과 6층 중회의실 분선 2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한다.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가 두 분, 대학 강사가 한 분, 첼리스트 한 분이다.

수강생 모집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 남구신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플래카드를 달아 많은 사람이 보게 했으며 과목당 50명씩 선착순으로 뽑았다. 수강생 모집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전화로는 등록을 받지 않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했다.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는 연령층은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

는데 조기 마감된 것을 보면 인터넷 활용 유무가 수강생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연령층은 50·60·70대 순이고 다음으로 40·20·30대, 80대가 두 분이다. 수강은 한 사람당 두 과목으로 제한했는데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실 문은 남구 주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고루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

시 수업은 우리 지역 대표 문인들의 작품을 다룬다. 학생들의 창작물을 두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다. 나중에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수정과 퇴고를 거쳐 작품집을 발간하고 가을에는 각자의 시 한 편을 역자에 담아 푸른길공원에서 전시할 계획도 있다.

음악 수업은 서양 음악사다.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가와 그들의 음악을 영상과 실제 연주로 보여 줄 것이다. 공연 경험이 풍부한 첼리스트가 진행하는 서양 음악사는 남구 인문학아카데미의 특색이라 하겠다.

철학은 논어를 중심으로 하며 수강생들의 집에 보관된 고문서나 병풍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오면 그 내용을 해석해 주려 한다. 수강생들과 포충사와 지산재 등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방문해 주립이나 편액을 해석해 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힘들게 찾아가 봤지만 한자를 몰라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 수업은 호남 정신의 구심점이자 광주민주화의 출발지인 포충사의 유래와 그 주역들을 다룬다. 고경

명과 그의 두 아들인 종후·인후, 의병장 안영, 유팽로 등과 팔도 의병장 김덕령,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에서 큰 공을 세운 정충신도 포함된다. 8월에는 포충사에서 출발해 구례 석주관 피아골 연곡사를 거쳐 이순신 장군의 순국지인 남해 충열사를 거쳐 진주성까지 둘러보는 역사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진주성에 있는 충열사에 들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국한 의병들의 활약을 간접적으로나마 떠올려 보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역사적으로 호남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로 호남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여 주었다. 호남 사람들은 임진·정유왜란은 물론 한말 의병 전쟁과 일제 강점기에도 앞장서 싸웠다. 교전 횟수도 타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생도 컸다. 해방 이후에도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신장해왔다.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호남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구 인문학 아카데미는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배우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문학 수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

社說

방치된 진곡산단 쓰레기 관리 누가 해야 하나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오선동 일원에 조성된 진곡 일반 산업단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단 내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설 지원시설 부지 두 곳에 불법 투기된 온갖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절대 가만 있지 말고 신고할 것’ ‘학교 폭력을 당하면 누구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 ‘친구에게 하는 장난·놀림은 그 자체로 학교 폭력이다’ 이 문구를 전단지에서 학교 밖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과 카페점 등을 운영하는 상가업주들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들끓는 벌레와 야생 쥐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년간 진곡산단 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만 해도 쓰레기 투기 관련 열 건과 사유지 정결 명령 여섯 건 등 모두 30건에 이른다.

한데 쓰레기 처리를 놓고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 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서로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책임 소

재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되며 산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나마 관할 구청인 광산구의 환경미화원 91명 가운데 산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한 명에 그쳐 산단과 사유지 관리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진곡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 2019년 모든 부지 분양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미진 시설 부지에 식당과 카페 입점이 미뤄지며 골머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시설 용지는 분양 후 1년 이상 미입주 시 환수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광주시 도시공사는 책임 소재만 따지지 말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구청 역시 부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정결 유지 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근로자 건강 챙기는 반값 조식 센터 확대를

조기 출근으로 아침밥을 챙겨 먹기 힘든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센터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그제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 조식 지원 센터’(간편한 아침 한 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복지관 1층 로비 한편에 설치된 9㎡의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10시까지 운영된다. 메뉴는 샌드위치 세 종류(일반·맛살·햄에그)와 샐러드 세 종류(새우·닭가슴살·파스타)이다. 가격은 6000원으로 책정됐지만 광주시가 절반을 지원하니 반값에 살 수 있다. 풀라·사이아·커피는 1000원이다. 근로자는 이름, 나이, 근무 회사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으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센터 측은 이날 샌드위치 50개와 샐러드 50개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몰려 한 시간여 만에 품났다. 근로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자주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센터 측은 음식을 열 개 이상 전 날까지 주문하면 직접 배달도 해 줄 예정이다.

조식 센터 개설은 산업단지 근무 시작 시간이 평균 오전 7시 30분이어서 근로자들이 아침을 거른 채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실제로 2019년 광주시의 실태 조사 결과 광주 지역 일곱 개 산업단지 업체들 중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8.9%에 불과하고, 근로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아침밥을 거른 채 강도 높은 일을 반복하면 근로자의 건강은 악화되고 작업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 건강권 확보와 조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식 센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음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더욱 좋겠다.

無等鼓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총칭해 ‘무당층’(無黨層)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부동층’(浮動層) 또는 ‘숨은 표심’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 애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어떤 정당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적 무당층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당층은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을 보

는 사안별로 실용적 판단을 내린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연령별로는 18~29세의 무당층 비율이 급증했다.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수 국민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커지면서 등을 돌리거나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야가 죽기 살기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도 모자라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나뉘어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각 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을 무당층으로 돌아서게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생 경제는 힘들어지는데 당내 계파간 권력 다툼에, 타협과 설득·공감 없는 여야의 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정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무당층 비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무당층들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표를 몰아주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작금의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잠시 지지 정당을 철회한 무당층의 표심이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정쟁과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 소신과 타협, 설득과 공감으로 국민에게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